



‘요셉 테스트’ 통과하기 Passing the ‘Joseph test’

페넬라 베네트(Fenella Bennetts)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넬(Christian Science Sentinel)

2011년 11월 28일

“그건 공평하지 않아!”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본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흠 -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 그런대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탓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듯, 누가 “뭐, 사는 것이 늘 공평하지는 않아...”라고 말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친구인 요셉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 그에 대한 그림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중의 화가들이 하셨듯이요. 그의 예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왜냐면 공평치 않은 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분**을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였습니다. 요셉은 *과학과 건강*에서, “모든 해로운 상황을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대처하라.” (419 쪽)고 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것을 “요셉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셉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 자신도 알아야 할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 즉 자신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패배자도, 희생자도,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를 버리려고 하시거나 위협이나 실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질투하여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던가요? 여러분은 그가 그 구덩이의 밑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건 공평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항상 “자기 연민 [self-pity]”이라는 불쾌한 것으로 가득 찬, 마치 옛날의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 [self pit]” 처럼 들립니다.) 대신 그는 그의 큰 첫 번째 “요셉 테스트”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몇 명의 지나는 여행자들이 나타났고 그의 형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어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이 여행자들에게 팔아 넘기자는 좀 더 친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파라오의 경호대장에게 팝니다.

팔렸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경호대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창세기 39장 3절)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대장은 곧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또 다른 일이 잘못됩니다. 경호대장의 아내가 그에게 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피하기 위해 집밖으로 도망하자, 그녀는 부적절한 관계를 원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경호대장은 매우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노예, 이제 죄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테스트 역시 훌륭하게 통과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연민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간수장과 친구가 되었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이때에 죄수들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때 감옥에 있었던 파라오의 시종이 2년 후 파라오가 꿈을 꾸고 고민에 빠져있을 때 요셉을 기억해 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왔고, 그에게 해몽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는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온 이집트 땅에서 제 2 인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견지명으로써 요셉은 그 나라를 굶주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그와 재결합하도록 이집트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요셉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같이 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그를 구덩이에 집어 넣은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거나, 경호대장에게 그의 아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에 대해 말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낸다거나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최선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악이나 오류는 단지 하나의 암시(즉,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앎으로써 오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이나 오류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나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진실도 아닙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진리가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오류를 폭로하고 파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인간의 정의는 신성의 정의를 본뜨도록 하라.”(*과학과 건강*, 542 쪽)고 썼습니다.

요셉은 몇 가지의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은 시험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 또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예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최상의 자아보다 못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레고 조각들로 복잡한 모양의 물건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썼는데, 동생이 실수로 부딪쳐서 그것이 모두 부숴져 버렸다고 합시다. 또는 친구가 심술이 나서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밀어버렸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공평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순식간에 여러분은 요셉 테스트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스스로 파 놓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마도 옆 방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최상의 자아 - 즉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으신 자아** -보다 못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셉이 가졌던 것과 같은 영적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 나감에 따라,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면 요셉처럼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될 특별한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험들을 통달할 수 있고, 머지 않아 전 과목 백 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페넬라 베넷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고 선생이다. 그녀는 영국 리플리에서 살고 있다.